

산업용 배관 건전성 검사 기술 국내 독자 개발 가능성 입증

최명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전남대서 공학박사 학위 받아

'인텔리전트 피그 개발...' 논문 발표 국내외 기업에 기술 이전화 사업 추진



최명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우리나라 기간사업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용 배관의 건전성 검사 기술의 국내 독자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 이사장은 최근 '배관의 건전성 검사를 위한 인텔리전트 피그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배관의 건전성 검사에 필요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인텔리전트 피그'를 독자적으로 개발·적용하기 위해 변형 및 부식 검사 장치와 검사결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피그'란 길고 좁은 배관 속에서 청소, 검사, 보수하는 장비다.

특히 그는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실질적 검증 실험을 실시해 개발한 검사장치의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배관검사 기술의 국내 독자 개발 가능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 이사장은 해당 논문으로 지난 달 전남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앞서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국내 최초 피깅(Pigging) 전문업체 ㈜코인즈는 국내 플랜트 산업의 각종 배관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국내 기술로 수행해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2019년 해외 플랜트건설 수출을 목적으로 여수 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을 창립한 그는 업계 발전과 해외 진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성과공유형 공동기술 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돼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명환 이사장은 "향후 조합 발전을 위해 개발된 특허 등 기술성과를 국내외 기업들에게 이전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나아가 조합과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화를 이끌어 내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현채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별세

광주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정현채 전 로케트전기 사장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유족은 지난 18일 "고인은 평소 지병을 앓아 왔으며 오늘 오전 3시에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화순 출신인 고인은 광주 중앙초등을 졸업했다. 광주서중과 광주고교를 거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기자 시절 한국기자협회전남도지부장을 역임했으며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광주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광주일보 수석 논설위원을 끝



으로 언론계를 떠났다. 지난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광주서구에 출마했다.

한편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이다. 장지는 인천가족공원. 문의 010-8227-007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농업기술원, 구례군 농기계 순회수리 실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15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구례군 마산면 광평마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설립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1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전남대학교, 인공지능산학연협회와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은일 전남대학교 부총장, 최현택 인공지능산학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12월 개소 예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앞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개발 ▲장애인 IT전문가 양성 ▲IT분야 취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장애인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 전문 훈련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단은 21년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 구로디지털훈



련센터와 판교디지털훈련센터를 설립, IT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훈련 과정과 IT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향현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한 장애인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관련 기업과 취업 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부대 학생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오리엔테이션 개최



남부대학교(총장 서범식) 교양교육원(원장 박순길)은 최근 2022학년도 교양교육학생모니터링단 '해냄길라잡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교양교육 학생모니터링단(모니터링단)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 개선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수요자 중심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단됐다. <남부대 제공>

호남대 물리치료학과,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



호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학과장 이동우)는 최근 학교 건학관에서 모던빌라테스(대표 임운경)에서 기탁한 장학금 200만 원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물리치료학과는 지난 1학기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김다희, 박푸름, 이슬현(이상 1년)씨와 학업성적이 우수한 황인건(4년)씨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했다. <호남대 제공>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법대로 사랑하라(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 45 치차핑핑 시즌4(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몰 건너온 이빠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30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개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연중 플러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닥터 365 25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황금가면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법대로 사랑하라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30 공생의 법칙1 스페셜
12	10 역사저널 그날(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통합뉴스룸 ET(재)	00 스포츠 매거진 40 차종우돌 만국유랑기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전트스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9:00 말괄량이 삤삤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30 한국의 둘레길
07:15 출동! 슈퍼스타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50 바닷가 사람들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댕댕뎃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로망 가득 프랑스 -지중해와 프로방스의 향기>
08:20 로보카 폴리	14:45 바닷가 사람들	21:30 한국기행 <함께라서 좋아 1부 내 친구의 숲속 오두막>
08:35 그린조개 구조대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1:50 EBS 다큐프라임
08:50 띠띠뽀 띠띠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05 슈퍼투퍼 잉글리시	16:15 페파 피그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빅 블루	16:25 그린조개 구조대(재)	
09:35 타타와 쿠마	16:40 댕댕뎃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8월 24일 乙亥)

<p>36년생 적절한 절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48년생 걸음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갖가지 난제들 덩어리다. 60년생 나서지 말고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72년생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84년생 의지대로 도모해도 되는 위상이이다. 96년생 시간 낭비만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2, 52</p>	<p>42년생 함께한다면 발전적인 힘이 생긴다. 54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66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78년생 오랫동안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가 생겨날 것이다. 90년생 실의를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76</p>
<p>37년생 오늘의 일이 근간을 이룰 것이다. 49년생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던 바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61년생 막힌 곳이 생기지만 쉽게 뚫을 수가 없어서 매우 답답하겠다. 73년생 실수한다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85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요구된다. 97년생 굳이 지름길을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 47, 74</p>	<p>43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움을 수밖에 없다. 55년생 구제화되면서 가능성을 높게 되느니라. 67년생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가닥이 잡힐 것이다. 79년생 세간의 의견이 결집되어 제3의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91년생 세뇌되면 점점 흥미를 더해가 되리라. 03년생 준비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16, 97</p>
<p>38년생 상황을 잘 살펴본 후에 행하자. 50년생 모순점이 보일 것이니 지체 없이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극상의 점정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숙고해 왔던 바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다. 86년생 적부의 판단을 해야 할 임박이 된다. 98년생 묵묵히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18, 94</p>	<p>44년생 밤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판이다. 56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68년생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92년생 참에한 관심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04년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지경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라. 행운의 숫자 : 00, 58</p>
<p>39년생 돈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락을 잡을 것이다. 51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라. 63년생 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75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87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겨 왔던 바가 무너질 수 있다. 99년생 걸음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0, 91</p>	<p>33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45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57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69년생 기대해 왔던 바가 허망해지는 처지이니라. 81년생 두드러진 반드시 열릴 것이다. 93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82</p>
<p>40년생 흡사해 보이지만 근본 원인부터 다름을 알아야 한다. 52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번 낫다. 64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숙고해 왔던 바를 결정하게 되는 날이다. 88년생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00년생 예견된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9, 61</p>	<p>34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법해 여기저기 말라. 46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58년생 서로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70년생 급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82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해야 할 때다. 94년생 애매하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06, 83</p>
<p>41년생 일선이 안락하니 세상이 태평하다. 53년생 두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7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89년생 악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느니라. 01년생 순리에 따르면 거릴 것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5, 50</p>	<p>35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느니라. 47년생 시급한 일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니라. 59년생 유동적이니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해야겠다. 71년생 잘하다가도 일순간에 망심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83년생 썩 대신 닭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95년생 후유증이 상당하겠다. 행운의 숫자 : 11, 86</p>